

중도입국청소년 초기 적응과정에 관한 조선족 부모의 경험과 인식*

남부현** · 김경준***

초 록

본 연구는 중국계 중도입국청소년들이 한국 사회와 가정 내 초기 문화적응은 어떠한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와 문제는 무엇인가를 심층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에 자녀들의 초기 적응과정을 지원하고 가까에서 지켜본 6명의 조선족 부모를 대상으로 현상학적 질적연구를 수행하여 그 주요 결과는 5개 범주에서 9개의 대주제와 22개의 소주제가 도출되었다. 참여자와 자녀들은 조선족으로 한국인도 중국인도 아닌 양국가의 경계 속에 살며 정체성 갈등과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경험하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중국에서 성장한 후 한국으로 이주한 중도입국 자녀들은 아직은 스스로 중국인으로 인식하고 민족정체성이 미약하며 역사적 문제도 모국에서 학습한 내용에 기반하며 인식한다. 이주 초기 자녀들의 주요문제는 가족 구성원의 일방적인 한국문화와 한국어 습득 강요이며 스스로 많은 적응 갈등과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이에 중간 역할을 하는 '모'는 중도입국 자녀들이 스트레스 해소로 같은 처지의 청소년과 어울리며 게임에 몰입하고 한국어 학습은 소홀히 하는 상황을 걱정하며 동시에 불만을 표현하였다. 이들의 학교 편입학 과정은 복잡하고 어려움이 많지만, 부모는 앞으로 자녀의 진로에 대해 기대감과 동시에 걱정도 나타났다. 중도입국청소년의 이주 초기 재사회화 과정은 많은 문화적 갈등과 스트레스를 동반하며 가정 내에서 문제해결도 어려운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본 연구는 중도입국청소년들의 긍정적인 초기 문화적응을 위해 가족은 물론 범사회적 차원의 다문화교육을 통한 변화와 실천을 제안하였다. 특히, 이들의 교육을 위해 한국어, 진로, 학교 교육 등의 통합적인 교육개혁과 두 국가 간 교육과정의 연계도 제안하였다.

주제어: 중도입국청소년, 문화적응, 조선족 부모, 한국어, 교육

* 이 논문은 2016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과제인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II」에서 수집한 질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루어졌음.

** 선문대학교 상담심리사회복지학과 교수, 제1저자, namx0015@hotmail.com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교신저자, jun@nypi.re.kr

I. 서 론

세계화의 물결과 함께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한국사회로 다양한 외국인들이 취업, 결혼, 또는 학업 등의 이유로 유입되어 한국은 다문화사회로 발전하였다(남부현, 오영훈, 한용택, 전영숙, 2016). 지난 2000년대 한국사회 내 다양한 인종·민족·언어·종교적 배경을 가진 이주민들의 증가율은 19.86%를 기록하여 OECD 국가들 중에 최고를 보였다(시사인, 2014). 이러한 추세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한국 체류 이주민 수는 2016년 10월 말 약 200만 명을 넘어서며 전체 국민의 3.8%를 차지한다. 이들을 주요 국적별로는 살펴보면, 중국계 이주민이 압도적인 수적 우위를 점해 979,624명(50.3%)이었으며, 미국 150,766명(7.7%), 베트남 140,811명(7.2%), 태국 91,690명(4.7%), 필리핀 55,370명(2.8%) 등의 순으로 많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6, 10)¹⁾. 특히, 중국계 이주민들 중 한국에 정착한 부모들은 본국에서 성장한 자녀들의 이주를 지원하며 한국사회 내 ‘중도입국청소년²⁾’이란 새로운 사회구성원을 탄생시켰다.

중도입국청소년은 매년 증가하여 2012년 4,288명에서 2016년 7,418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교육부, 2017). 청소년 시기에 한국사회로 이주한 중도입국청소년들은 한국에서 태어난 일반 다문화가정 자녀들과 달리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새로운 가정과 사회 내 문화와 생활습관 등의 차이로 적응이 시급한 상황이다(남부현, 김지나, 2017; 류방란, 오성배, 2012; 엄명용, 2013; 이병철, 송다영, 2011). 학교생활을 하는 중도입국청소년들은 한국어 미흡, 학업의 어려움, 그리고 또래나 교사 관계 등의 어려움을 표출하고 있다(남부현, 김지나, 2017; 박봉수, 2013; 양계민, 조혜영, 2012). 특히, 이들은 초등학교 단계에는 대부분이 학교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으나, 중학교 및 고등학교 단계에는 각각 60.5%와 36.7%만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세 이상 중도입국청소년은 18.3%만이 재학하고 있으며 30% 이상은 단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와 용돈을 벌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 스스로 자신의 진로문제(54%)에 대한 고민이 많다(배상률, 2016).

1) 법무부(2016, 10).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http://www.immigration.go.kr>에서 2017년 10월 22일 인출

2) 중도입국청소년이란 한국에서 출생하지 않고 외국에서 성장하다 학령기에 한국에 입국하거나 이미 한국에 살고 있는 부모의 초청으로 입국하게 된 이주배경을 가진 청소년을 말한다(남부현 외, 2016, 230-231).

이와 함께, 대부분 중도입국청소년들은 모국에서 이미 사회화가 된 후에 한국으로 이주하였기에 출신국 문화와 한국의 새로운 문화가 만나 충돌하여 적응과정에서 어려움과 갈등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한국으로의 이주가 결정되어 또는 사전에 충분한 정보없이 입국한 경우가 많으므로 청소년 시기에 두 문화를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적응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러한 문화적 적응 중에 이들은 종종 심리·정서적 소외와 분리도 경험하게 된다(오경석, 2010; 이지은, 2016; Benet-Martines & Haritatos, 2005). 그리고 새로운 가정에서 새 부모와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형성에도 많은 노력과 적응을 필요로 한다(송민정, 2014; 양계민, 조혜영, 2012). 하지만, 이러한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 내 정착은 개인과 가정의 상황에 따라 다르며, 특히, 개인적인 언어소통 능력과 문화적응 차이 등에 따라 그 문제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송민정, 2014). 이에 중도입국청소년들은 다양한 특성을 지닌 집단임을 깨닫고 대상별로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들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이들을 주로 한 집단으로 고정하고 이들의 한국어교육, 또래관계, 학교생활, 교사관계, 문화 정체성, 교육정책 지원과 프로그램 등으로 나누어 부분적으로 연구가 수행되어졌다(김명정, 2011; 남부현, 장숙경, 2016; 조혜영, 양계민, 2012; 양계민, 조혜영, 2012; 오성배, 서덕희, 2012; 이수진, 김현주, 2016; 이병철, 송다영, 2011; 이지은, 2016; 주영아, 김현주, 윤경주, 2014) 이로 인해, 중도입국청소년들의 한국 사회와 학교생활 적응에 대해 단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경향이 높고 보다 차별화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앞으로, 중도입국청소년 연구는 이들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출신 국가별로 이들이 한국 사회와 가정 내 문화적응 모습과 그 과정은 어떠한지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계 중도입국청소년들이 이주함과 동시에 만나는 자신의 가족과 가정 그리고 사회생활 속에서 초기 문화적응은 어떠한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와 문제는 무엇인가를 심층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이에 중국계 중도입국청소년을 자녀로 둔 의사소통이 충분한 6명의 조선족 부모를 대상으로 현상학적 질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이들을 위한 차별화된 교육지원 정책과 서비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II. 중도입국청소년의 초기 적응과정

1.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정체성 갈등 그리고 사회적 차별

청소년시기에 국가 간 이주라는 특수한 경험을 한 중도입국청소년들은 한국 생활에 필요한 새로운 언어와 문화 학습을 통해 재사회화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과정을 Ward와 Kennedy(1994)는 사회·문화적 적응이라고 하며, 이들 이주민이 새로운 사회의 패러다임을 배우고 새로운 문화와 협상을 하며 새로운 사회에 적합하게 맞추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중도입국청소년들의 한국사회 초기 적응 과정은 미국에서 이주민들의 문화적응 단계에서 밝혀진 바와 유사하다(Oberg, 1960). 이들은 처음 접하는 한국 문화에 대해 호기심과 감탄 등의 반응을 보이다가 바로 좌절과 분노, 불안과 부적절함을 느끼며 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류방란, 오성배, 2012; 박봉수, 2013; 배상률, 2016; 선은정, 2014). 이로 인해, 중도입국청소년 대부분은 한국 입국 전에 가지고 있던 기대감이 입국 후에 무너지면서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과 가정형편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한국어 학습의 어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초기 학교 또는 사회생활 적응에 심리적·정서적 불안과 스트레스가 높아지게 된다(남부현, 김지나, 2017).

한국으로 이주한 중도입국청소년들 대부분은 초기에 외국인으로 분류되며 한국에서 태어난 일반적인 다문화가정 자녀와는 달리 언어적 소통의 문제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경험하며 한국사회 적응에 어려움이 많다(남부현, 김지나, 2017; 류방란, 오성배, 2012; 배상률, 2016; 이병철, 송다영, 2011; 이수진, 김현주, 2016; 한은진, 2013). 이들은 초기에 한국어 습득, 학업, 진로, 그리고 경제적 빈곤 등의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스스로 많은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박봉수, 2013; 조혜영, 양계민, 2012; 엄명용, 2013; 양계민, 조혜영, 2012; 이수진, 김현주, 2016; 이병철, 송다영, 2011; 한은진, 2013). 학교에 재학 중인 중도입국청소년들은 종종 문화적 차이와 언어적 소통의 문제 등으로 따돌림을 당하며 학교에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으로 스스로를 이방인으로 느끼며 학교생활 적응이 힘든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남부현 외, 2016; 박봉수, 2013; 양미진, 고흥월, 김영화, 이동훈, 2012). 이로 인해, 중도입국청소년들은 종종 같은 문화권 출신의 친구

들과 함께 어울리며 자신의 스트레스나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있으나 한국 내 문화적 부적응 양상을 보여 교육적 측면에서 새로운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남부현, 김지나, 2017; 박봉수, 2013; 배상률, 2016; 선은정, 2014; 정희정, 김소연, 2014).

다른 한편, 청소년기에 한국으로 이주한 중도입국청소년들은 새로운 한국문화 속에 재사회화의 과정을 거치며 정체성 혼란 상태를 경험한다. 특히, 이들은 출신국가의 정체성과는 다른 국가적 또는 민족적 정체성을 만들어가며 혼란을 경험한다(남부현, 김지나, 2017). 본국에서 형성한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과 가치관과는 다른 한국사회와의 문화차이로 인해 적응 스트레스와 함께 정체성 갈등도 발생하는 것이다(박봉수, 2013; 양계민, 조혜영, 2012; 이수진, 김현주, 2016; 이병철, 송다영, 2011; 한은진, 2013). 이에 중도입국청소년들은 종종 모국에서의 생활을 그리워하며 수년 동안 돌봄을 받아온 외조모나 친척 그리고 친구들을 보고 싶어하며 모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심정을 표출한다(남부현, 김지나, 2017). 이처럼 국가적 경계를 넘어 이주한 중도입국청소년의 초기 적응 과정은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체성 혼란, 그리고 사회적 차별 등을 동반하는 힘겨운 재사회화 과정인 것이다.

2.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교육

중도입국청소년 관련 교육적 지원과 프로그램은 체계화 되지 못한 경향이 높다. 지역사회 내에서 학교 밖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한국어교육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 대안교육기관, 지역아동센터 등이 있으나 이들 기관의 교육적 환경 및 여건, 교육과정 운영, 예산 등은 미흡한 실정이다(김정민, 한상길, 2015; 남부현 외, 2016; 남부현, 장숙경, 2016). 이로 인해 한국으로 이주한 후 중도입국청소년들에 대한 주변 친구나 가족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중도입국청소년은 연령이 높을수록 탈학교 비율이 높고 교사와 학생들의 부정적인 태도가 이들의 학교 이탈을 높이는 원인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십대 후반인 이들은 학교를 다녀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스스로 학교 진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이들은 집에서 TV를 시청하거나 컴퓨터 게임 등으로 시간을 보내며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봉수, 2013; 오경석, 2010; 오성배, 서덕희, 2012; 양계민, 조혜영, 2012).

중도입국청소년의 문화적응과 교육과 관련하여 가족과 주변인의 지지와 지원이 중요한 자원임을 밝혀졌다. 가족의 지지에 따라 이들의 문화적응 정도나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는 달라진다고 한다. 새로운 가정 내 부모가 중도입국청소년들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고 정서적인 지지를 해 주는지에 따라 이들의 문화적응은 개인적인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배상률, 2016; 정희정, 김소연, 2014; Ward & Kennedy, 1994; Berry, 1997). 특히, 새 아버지와 중도입국 자녀 간의 관계가 만족스럽고 의사소통이 개방적이며 새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관심이 높으면 자녀의 진로나 교육결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도입국청소년이 주변 가족인 한국인 아버지와 소통과 애착관계 형성이 잘 되면 한국어 능력도 높아지며 학습이나 진로준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다(이지은, 2016; 정희정, 김소연, 2014; 조혜영, 양계민, 2012; 한은진, 2013). 또한, 교사의 지지를 많이 받거나 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으면 진로정체감, 자아존중감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 재학 중인 중도입국학생의 경우, 담임교사와의 라포(rapport) 형성이 잘 된 경우와 저학년의 경우는 학교생활 적응을 잘하고 있음이 밝혀졌다(김민경, 2015; 김정민, 한상길, 2013; 이지은, 2016; 정희정, 김소연, 2014; 주영아, 김현주, 윤경주, 2014). 이에, 중도입국청소년 지도는 가정과 학교가 함께 노력하며 심리·정서적인 지지를 통해 문화적응 과정에 담긴 어려움을 잘 극복하도록 동기화할 필요가 있다.

3.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어와 진로

십대 청소년인 중도입국청소년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한 걱정과 고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배상률, 2016). 이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자기에 대한 이해부족 그리고 자신감 부족 등으로 진로장벽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 특히, 한국어 소통이 어려우면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하며 문화적응 스트레스도 높고 진로준비에도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지은, 2016). 한편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한 중도입국청소년들은 한국어 능력 부족과 신분상의 문제 등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자신의 미래 진로나 적성과는 무관한 일을 하며 불확실한 삶을 살고 있다(조혜영, 양계민, 2012).

중도입국청소년들은 한국어 학습기간이 길어지면서 학습동기가 낮아진다는 결과도 있다. 이들은 이주초기 문화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실생활의 필요에 의해 한국어 학습을 시작하지만 학습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한국어 학습 동기나 태도는 줄어들고 현실적인 취업에 더 관심이 많다. 이로 인해, 십대 청소년인 중도입국청소년들에게는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현실 정착을 위한 직업교육이 더욱 더 필요하다(김민정, 2015; 김아름, 김여주, 이선영, 2013). 중도입국청소년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은 현실적으로 이들의 학업과 진로를 고려하여 이들의 이주시기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을 우리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초기 적응교육은 국가 교육과정 체제 속에서 이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개혁과 함께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김명정, 2011).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새로운 구성원으로 등장한 중국계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한국 사회와 가정 내 초기 문화적응은 어떠한지 탐색하고 그 경험의 세계 속에 존재하는 의미와 본질을 밝히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에 의사소통이 충분한 6명의 중도입국 자녀를 둔 조선족 이주민 부모들을 대상으로 자녀들의 사회와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초기 정착에 관한 경험담을 모아 현상학적 질적연구를 수행하였다.

Giorgi(1997, 2003)에 의하면 현상학이란 주관적 경험에 대한 의미와 본질을 연구자의 현상학적 직관에 의한 환원(reduction)을 통해 이해하게 된다는 점에서 비실재적이며 의도적이고 정체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내재적이란 특징을 갖는다고 한다(남부현, 김지나, 2017: 73에서 재인용). Creswell(2013)은 현상학을 주관 속에서 지각되어지는 체험을 분석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경험 속에 있는 의식의 구조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여러 참여자들의 살아온 경험의 의미나 현상에 대해 기술하며 참여자들의 의식 내용과 구조를 상세히 묘사하며 이들의 경험에 대한 질적 다양성을 이해하고자 하며 본질적인 의미를 설명하고자 한다. 즉, 현상학적 접근법은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한 그 현상에 대해 개념화하고 이론적인 설명을 만들어 내지 않고 반성(反省) 그 이전의 직접 경험한 그 생활세계를 연구하며 그것의 체험적 실존적 의미를 담아내는 연구방법이다

(Giorgi, 19997; Giorgi & Giorgi, 2003; 남부현, 2015에서 재인용).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자녀들의 한국어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소개로 연락처를 받고 개별 전화연락을 통해 만남이 이루어졌다. 참여자의 개인적인 특성은 다음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이주민들로 천안과 안산 지역에 거주하며 모두 자녀와 함께 동거한다. 자녀들의 한국 거주기간은 짧게는 3개월부터 2년 미만이다. 참여자들은 자녀들의 초기 적응과 정착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자녀의 삶 속에 발생하는 이슈, 사건, 또는 문제 등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고 표현할 수 있는 부모들이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6년 5월-7월까지이며 참여자의 가정이나 편리한 장소에서 2-3시간 정도 일대일 만남을 통해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참여자	성별	나이	출신 지역	부모 거주		직업	자녀		가족 형태
				지역	기간		나이	기간	
1	여	47세	중국 상하이	천안	2년	식당일	19세	1년	부부
2	여	40세	중국 흑룡강성	천안	5년	식당일	15세	3개월	재혼
3	여	44세	중국 요녕성	천안	10년	회사원	17세	1년 6개월	재혼
4	여	42세	중국 흑룡강성	안산	8년	주부	14세	1년 8개월	부부
5	남	40세	중국 길림성	안산	10년	건축	11세	1년	부부
6	남	46세	중국 길림성	안산	14년	사업	16세	1년 5개월	부부

연구자는 참여자들 자신과 자녀들의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시작하며 라포(rapport)를 형성한 후,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 그리고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연구 참여와 녹취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다. 면담 시 반구조화된 주요 질문내용은 자

녀의 사회와 가정 내 생활, 가족관계, 학업, 한국어 공부, 미래 진로 등에 관한 것들로 참여자들이 자신이 경험한 자녀의 일상에 대해 그대로 묘사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참여자들은 자녀들의 초기 문화적응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함께 경험한 다양한 사례들을 자신의 생각과 함께 진지하면서도 개방적으로 자유롭게 진술하였다. 또한, 중도입국청소년과 관련된 사회적인 문제와 교육관련 정책 등에 대해서도 변화를 요청하였다. 각각의 참여자와 개별면담을 진행하는 중에 연구자는 연구자 개인의 선입견이나 의견이 개입되지 않도록(괄호치기, bracketing) 노력하였으며, 참여자들의 자녀와 관련한 경험들을 충분히 경청하며 자료수집이 포화상태에 이를 때까지 면담을 진행하였다(Giorgi & Giorgi, 2003).

이후 본 연구자들은 녹취된 모든 면담 내용을 빠짐없이 전사하고 원자료를 완성하였다. 1차 완성된 원자료를 읽고 그 내용에 있어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은 일부 참여자들에게 2차 면담을 요청하여 만났으며 다른 참여자들은 전화 연락을 통해 보충설명을 듣고 원자료의 내용을 보강하였다. 원자료 분석 중 연구자들은 참여자들이 중도입국 자녀의 한국사회와 가정 내 초기 정착과정을 지켜보며 경험한 그것들은 과연 무엇이며 어떠한지에 대해 스스로 반복적인 질문을 하며 그 핵심 의미단위와 주제들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 경험들이 사회·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밝혀 그 경험의 세계 속에 존재하는 본질과 의미를 발견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 개인의 주관적 해석이나 의지를 배제한 판단중지(epoche, bracketing)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였다(남부현, 2015 에서 재인용).

주요 분석 절차는 Colaizzi(1978)의 방법을 활용하여 그 결과를 도출하였다. 1단계는 면담을 통해 준비된 원자료 녹취록을 여러 번 들으며 빠진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였다. 2단계는 연구자의 개인적인 경험과 선입견을 배제하고 원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며 의미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문장과 문단을 추출하여 서술 내용을 축소하였다. 3단계는 2인의 연구자가 교차분석하여 다시 반복하여 읽으며 연구자의 직관과 분석기술을 활용하여 핵심 의미단위와 주제를 구성하고 있는 문장과 문단을 추출하여 최종 총 22개의 소주제들이 도출하였다. 4단계는 유사 핵심의미나 주제를 담고 있는 소주제들을 묶어 9개의 대주제를 분류한 후 5개의 범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5단계는 정리된 범주, 대주제, 소주제는 핵심 의미를 담아낼 수 있는 말과 문장을 추출하여 가장 적합한 학문적인 용어로 명명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마치고 6단계는 최종 분석결

과를 2인의 대표 참여자를 대상으로 참여자들이 진술한 경험에 대해 왜곡이나 변경된 내용은 없는지 참여자 점검(member checks)을 실시하였다. 이후 2인의 질적 연구전문가들에게 단어의 선택이나 범주화된 주제와 결과에 대해 오류는 없는지 그 타당도를 평가받은 후 최종 수정하여 결과를 정리하였다.

IV. 연구 결과

본 연구는 최근 증가하는 중국계 중도입국청소년들의 한국 사회와 가정 내 초기 문화적응은 어떠한지 탐색하고 그 경험 속에 존재하는 의미와 본질을 밝히고자 함에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그 주요결과는 다음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총 22개의 소주제를 도출하여, 9개의 대주제로 정리·분류한 후 정체성, 사회적 차별과 편견, 문화 차이, 언어와 소통, 학업과 진로의 5개 범주로 나누어 구분하였다.

표 2

조선족 부모의 중도입국자녀 초기 문화적응 과정 경험과 인식 결과

범주	대주제	소주제
정체성	양국 경계 속 민족정체성 갈등	• 조선족, 어느 나라 사람? • 국가적 경계 넘는 한민족 정체성 • 아직은 중국인으로
	가변적 국가 정체성	• 상황에 따라 국가 정체성 변동 • 중국인 관점에서 역사 이해
사회적 차별과 편견	출신국에 따른 차별과 편견	• 중국 사람이기에 겪는 차별 • 못사는 나라에서 왔다고... • 우리 아이도 따돌림 받을까 걱정
문화 차이	문화충돌과 갈등	• 한국 생활예절과 문화 수용 어려움 • 모에게 불만 표출
	적응 스트레스	• 심리·정서적 불안 상태 • 친구 없고 게임과 핸드폰 집착 • 모국 친구끼리 어울림

범주	대주제	소주제
언어와 소통	소통 문제	• 중간 통역자인 엄마의 난처함 • 한국어 사용 강요하는 새 아빠
	문제해결의 열쇠, 한국어	• 최우선 과제는 한국어 학습 • 진로도 미래도 다 한국어가 좌우
학업과 진로	한국학교 진입과 진로 문제	• 복잡한 학교 편입학 과정 • 국가 간 학교교육의 차이 • 자녀 진로에 대한 막연한 기대
	교육정책과 서비스 요구	• 학교 관련 정보와 상담 서비스 요구 • 중도입국 자녀/학생 관련 정책 제안

1. 정체성

가. 양국 경계 속 민족정체성 갈등

참여자들은 조선족으로 두 국가 경계 속에 어느 한 국가에도 온전히 소속되지 못한 자신들의 힘겨운 처지와 속내를 밝히며 자녀들의 한국사회와 가정 내 적응 상황에 대해서도 많은 염려와 걱정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이주한 한민족 동포와 그 자녀들의 삶 속에서도 종종 발견되어진다(남부현, 김지나, 2017). 참여자 4는 중국에서는 소수민족 조선족으로 수용되고 한국에서는 중국 조선족으로 인식되며 종종 타인들에 의해 자신들의 국가 정체성이 구분되어지며 두 국가 경계 속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상황을 하소연하였다. 반면 참여자 1은 과거 중국사회 속에서 자신들은 조선족이지만 중국인과 구분 없이 컸고 스스로 중국인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 하지만, 한국으로 이주한 후 일반 한국인들이 한민족 동포인 자신을 중국인으로 구분하고 사회적 거리감을 두는 상황에 스스로 한국인으로 인식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참여자들은 스스로 한민족임을 인식하지만 자신들을 받아주는 사회가 아직은 같은 민족임을 인정하고 수용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로 인해 청소년기에 한국으로 이주한 자녀들이 자신들처럼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이방인으로 정체성 혼란을 겪으며 적응이 어려운 상황에 노출되어지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털어놓았다.

그냥 거기서 컸으니깐 중국인으로 알고 지냈지요. 그리고 조선족으로도 생각했지요, 저희는 중국 사람이라구 구분 없이 그냥 컸어요. 부모님은 조선 사람이고 그냥 난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했지요. 아직은 낯설고 그렇지요. 직장도 다니고 하는데 한국 분들이 중국 사람으로 생각하니깐 아직은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 안하고 있지요. 제 아이도 중간에 와서 이러한 형편인데 제가 도와 줄 수 없어 안타까워요. (참여자 1)

조선족이라는 자체는... 사실 조선족이라는 게 참 애매해요. 중국에 가면 우리보고 역시 조선족이라고 하고 저희는 한국 사람들 사이에는 중국사람 조선족... 가끔 헛갈려요... (중략)... 나는 도대체 어디 어느 나라 사람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한국에서는 너는 조선족 동포라고 하고 중국에서 가면 우리가 아무리 중국어를 잘해도 그 사람한테 못 따라가거든요. 밀리잖아요. 그렇다 보니깐 약간 한마디로 딱 이야기 하는 것이 어려운 것 같아요. (참여자 4)

한민족으로 생각하죠. (이제는) 아버지, 어머니 다 한국국적이고 한국인, 중국인을 떠나서 (아이도 자신을) 한민족으로는 생각해요. (참여자 6)

나. 가변적 국가 정체성

참여자들은 국가적인 경계를 두고 일반 한국인들이 자신들을 중국인으로 몰아가거나 중국인을 무시하면 중국사람 편에 서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참여자 2는, 특히, 한국인들의 일방적인 차별 발언이나 무시하는 태도는 중국 동포인 자신들이 종종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게 만든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참여자들은 자녀가 한국에서 한국인으로 한국인의 정체성을 발전시키며 살길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아직은 중국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자녀들이 한국 사회에서 관념적인 민족적 경계를 넘어 이 사회에서 일반 한국인으로 존중받고 소속되어 삶을 살길 기대하였다.

여기 와서 본인이 한국국적이고 군대도 가야하고 한국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한국사회에 들어온 것은 아니에요. 지금은 한국인이라고 생각해요. 군대도 가야하고 대학은 꼭 가려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 살고 싶어해요. (참여자 1)

초등 친구들 100명 되는데 단체 특하는데... (중국인에 대한 편하적 또는 차별적 발언)... 난리 났어요. 친구들이 모두 조선족이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사람 편에 서요. 제가 보면 지금 (한국에서) 민족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는 거 같아요. 지금 자기가 속해 있는 국적에 따라 의견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참여자 2)

하지만 참여자들은 한국 정착기간이 짧은 자녀들이 중국 학교에서 배운 역사적 정보로 인해 한국 역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임도 설명하였다. 이러한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입장은 중국에서 교육받고 성장하며 사회화되어 자연스럽게 자신의 국가적 정체성을 체득하고 확립한 것으로 아직은 두 문화 사이의 정체성 갈등을 스스로 소화하기엔 역부족인 것이다(오경석, 2010; Benet-Martines & Haritatos, 2005). 참여자 3은 한국의 역사에 대해 잘 모르고 관심도 부족한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며 자녀도 아직은 중국과 한국 역사를 구분하여 알 수 없음을 당연히 여기는 모습을 보였다.

애가 중국교육을 받아서 생각 자체도 좀 달라요. 예를 들면 역사 얘기 같은 거 해도 중국교육을 받아놓으니깐 중국에서 배운 역사와 여기서 역사가 다르니깐. 가끔씩 얘기 해 주면 이해는 하려고 해요. 하지만 자기 아는 거 얘기하면 또 다르지요. (참여자 2)

아이는 아직 자기가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조선족이라고 생각은 안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커서 그런 것 같아요... (중략)... 우리 중국 사람들은 한국과 중국 역사 크게 구분 안 해요. (참여자 3)

2. 사회적 차별과 편견

가. 출신국에 따른 차별과 편견

참여자들은 한국사회 내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존재함으로 자신들이 아직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였다. 한국인들이 중국을 경제적 후진국이라고 생각하며 중국인을 무시하고 괘시하는 우월적 태도와 인식으로 참여자들도 사회생활에 부정적인 경험이 많음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이에 참여자들은 부모의 입장

에서 자녀들이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며 받게 될 차별에 대해 많은 염려와 걱정을 하였다. 대부분의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새로운 한국문화와 언어의 습득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특정국가 출신임으로 또는 이주민으로 사회적 차별과 편견에 부딪치며 이를 극복해야 문제도 안고 있는 것이다(박봉수, 2013; 양계민, 조혜영, 2012; 이수진, 김현주, 2016).

한국사회에서는 아직도 차별이 있어요. 앞에서는 안 그래도 차별 같은거 있지요. 지금 많이 좋아졌지요. 제가 처음 왔을 때 중국사람이라고 쳐다보고 신기해하고 그리고 좀 못사는 나라라고 말하고... 아직도 제가 느끼기에 차별은 있어요... 중국 사람을 겪어본 사람은 말투를 알고 중국 사람인 것 바로 알지요... 저 주변에 있는 한국 사람들 제가 느끼기엔 중국에서 왔다고 하면 괘시하고, 아직도 못사는 나라에서 왔다고 색안경 쓰고 보고... (아이가) 한국어 못하면 어떻게 하냐고 새 아빠도 걱정해요. (참여자 2)

한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이라고 없이 보는 거예요. 일 많이 시켜요. 관리자 아니어도 막 시켜요. 회사에서 중국 사람이라고 일 막 시켜요. 지금은 좀 낫죠. 일 시키는 거는 괜찮은데 무슨 일 때문에 내가 잘못이 아닌데도 나보고 화나면 난 그거 안 참아요. (참여자 5)

제가 일하는 데서 느끼는 건 게으르고 일 안하려고 한다고 말하고... 우리 교포나 외국인이 더 일하려고 하는데, 외국인이라고 우리 지금 생활에서 너무 무시하지 말고 좀 존중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한테서 보면 느껴요...(중략)... 결혼이민자 서로 얘기 하는 거 들어보면 이런 물건을 보면 중국은 이런 물건 없구나 라고 하고... (참여자 6)

참여자들은, 특히, 중국인 문제가 발생하면 자신들을 편견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문제를 중국인 전체로 확대 해석하는 경향을 비판적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참여자 4는 중국과 한국을 편 가르기 식으로 나누며 중국동포인 자신들의 민족정체성을 저울질 하는 한국인의 태도는 자신들을 평등한 사람들로 인정하지 않는 한국인의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참여자들은 앞으로 자녀들이 사는 세상에는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길 기대하였다.

당연히 한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아무리 지금 말로는 편견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상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보니깐 당연히 나도 편견을 받고 있는 상태 이니깐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 그거에 대해 당연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죠...(중략)... “뭘 범죄를 저질렀어. 저 중국 사람이잖아요.” “어, 축구 참여, 너 누구 응원 하나 ?” 물어보자나요. 솔직히 그 자체가 이미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에 사실은. 아예 그냥 맘에 아 그래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하면 한사람 잘못 저지르면... 어 중국 사람들은 다 그래. 약간 몰아붙이는 느낌... 이 사회가 우리까지는 편견이 있고 괜찮은데, 우리 아이들이 사는 데는 이런 거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 (중략)...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다 똑같으니깐 모든 사람한테 말하고 싶어요. 그냥 한 발자국 멀리서 볼 때 더 멀리 볼 수 있고 더 좋게 볼 수 있다는 걸. (참여자 4)

3. 문화 차이

가. 문화충돌과 갈등

참여자들은 중도입국 자녀들이 중국과 달리 한국 가정과 사회 내 기본적으로 알고 지켜야 할 예절과 규칙이 많아 일상생활에서 힘들어한다고 설명하였다. 참여자 1은 자녀가 처음으로 한국인 가족구성원들이 같이 살면서 두 국가 간 일상 문화적 차이로 인해 문화충돌³⁾을 경험하며 가족 간에 갈등도 발생하게 되는 경우를 설명하였다. 참여자 2의 사례처럼 중도입국 자녀들에게 한국의 일상 생활예절과 문화는 학습이고 의식적인 노력이어야 한다. 중도입국 자녀들은 일차집단인 가정에서부터 일방적으로 한국 문화를 따르고 적응하며 일상생활에 스트레스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은 부모입장에서 자녀들이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일상의 예절과 문

3) 문화충돌은 서로 다른 문화가 접촉하면서 발생하는 문화갈등의 표출양상이다. 불확실하고 예측하기 힘들지만 일반적으로 친숙한 문화가 낯선 문화로 대체되면서 기존문화에 대한 상실감과 새로운 문화에 대한 적응, 불안감이 문화충돌을 일으킨다(한국다문화교육연구학회, 2014 : 177-178).

화를 빠르게 익히고 적응할 수 있길 기대하였다.

중국은 예절 잘 안 지키지요. 인사하고 이런 것도 많이 중시 안 해요. 그런 것이 편했는데, 여기서는 인사도 몸으로 표시해야 하고 질서도 잘 지켜야 하고 아직은 서툴러서 좀 힘들지요. 늘 아빠가 인사하는 것 때문에 주의를 줘요. (참여자 1)

인사법부터 해서 중국에서는 깍듯이 인사하고 이런 거 없거든요. 아직 문화 등이 익숙치 않아서 예절 같은 것들이 달라 가르치고 있어요. 배우고 있지만 아직은 어려워요. 요즘에는 몸에 익어서 좀 나아졌어요 ‘잘 먹었습니다’ 인사도 하고. 하지만 문화 차이가 좀 있어 그런 점에서 힘들어요. (참여자 2)

나. 적응 스트레스 표출

참여자들은 부모로서 자녀들의 초기 적응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며 그 어려움 알고 그에 따른 스트레스도 함께 경험하였다. 참여자 3은 자녀가 불안한 마음에 ‘한국에서 노력해도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하나’고 걱정하는 소리에 마음이 무척 아팠다고 한다. 참여자 2는 자녀가 적응과정에서 친구도 없고 홀로 받는 심리·정서적 스트레스를 강아지나 엄마에게 표현하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도와 줄 수 없어 안타깝고 답답하다는 심정을 토로하였다. 참여자 5는 자녀의 무기력감을 걱정하였다. 하지만, 참여자들은 자녀가 중국에 있는 친구에게 연락하고 한국에서도 중국어만 쓰는 친구들과 어울림으로 한국어 발달과 적응이 늦어지는 상황에 많은 걱정을 하였다. 또한 자녀들이 게임을 많이 하고 핸드폰에 집착하며 한국어 학습을 소홀히 하는 모습에 불만을 나타냈다. 참여자들은 한국에서 노력만하면 정착이 가능하다고 인식하며 자녀들의 초기 적응 스트레스 표출과 방향을 충분히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훈나는 일과 스트레스가 많아요. 계속 핸드폰을 보고 공부도 하지만 게임 많이 해서 좀 혼나요. 또 아이가 집에서 심심하니깐... 집에 강아지를 못 살게 귀찮혀요. 그거 못하게 하면 대들고 화내고 강아지를 떼리고 싶다고 해요. 새 아빠랑 고모에겐 못하니깐 제게 짜증내고 대들고 해요. 항상 요즘 엄마에게 화를 내고 강아지를 못 살게 굴어요. 한 번씩은 속이 답답하다고 해요. 밖에 나가 고함치고 싶다고... 지금

아이가 친구도 하나 없고, 접촉할 친구도 없어서 정말 걱정이 커요. (참여자 2)

자기가 노력해야 하는데 아직은 노력은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하나요. 맘이 아팠어요(눈물을 보임). 큰 일이 생길 때, 저도 좀 어려움 느껴요. 00이도 노력해야 하는데... 우리는 외국에서 왔잖아요. 전 우리가 노력하고 잘 하면 괜찮다고 생각해요...(중략)... 혼낼 때는 아이가 핸드폰을 많이 써요.... 여기와서 중국에 있는 친구들 연락 많이 해요. 여기서는 센터 친구들 잘 사귀어요. 친구들과 같이 놀러도 가고 함께 만나서 당구장도 가고... 집엔 늦게 와요... 물어보면 ‘항상 친구들과 잘 지내요’ 하고 (무슨 일이 있는지) 말은 다 안 해요. 친구들끼리 다니면 공부 안하고 언어도 중국말만 해서 걱정이예요... (참여자 3)

쉬는 날에는 아침에 안 일어나요 쉬는 날에는 점심에 일어나요. 쉬는 날에는 무조건 자요.(참여자 5)

4. 언어와 소통

가. 소통 문제

중도입국 자녀를 둔 대부분의 가족들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함으로 가족 간에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친밀감 형성도 어려운 상황임이 나타났다. 참여자 4의 경우처럼, 부모들은 자녀가 자신의 익숙한 모국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새롭게 한국어를 배워 사용해야 하므로 ‘모’를 원망하며 스트레스를 표출하는 상황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언어, 언어문제, 소통이 안되니... (중략)... 침 왔을 때는 한국말 모르고 긴장해서 말을 못하잖아요... 우리 아들이 “왜 엄마 때문에 한국에 와서 고생시키냐고 엄마가 중국가서 살면 되지 힘들게 한국어 하라고 하냐”고... 침에 그랬죠...(중략)... 엄마 내가 한국어를 왜 배워야 해? 엄마 나 한국국적 따야 해? 그러면서 약간 애도 혼란스러워 해요. (참여자 4)

또한, 참여자 2의 경우처럼 재혼하여 자녀를 중국에서 데리고 온 가정은 자녀와 새 아빠 간에 언어적 소통의 어려움으로 중간에 낀 엄마가 대화 창구의 역할을 담당하며 곤란한 상황도 발생한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10대 청소년인 중도입국 자녀는 친밀감 형성도 어려운 새 아빠가 한국어 사용을 강요하면 소통이 힘들어 대화를 피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는 가정마다 차이가 존재하지만 중도입국 자녀와 한국인 가족 간에 언어적 소통의 어려움은 가족 간 갈등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것이다(송민정, 2014). 이에, 참여자들은 자녀가 빠른 한국어 습득을 통해 가정생활 적응은 물론 학교도 가고 부모 도움 없이 스스로 외부생활을 할 수 있길 기대하였다.

아빠는 아이가 워낙 크니까 많이 이야기는 안하지요. 00이에게 관심을 갖고 있지만 소통이 잘 안 돼서 세 사람이 있으면 저에게 중국말로 하면 제가 한국말로 통역해 주니까, 아빠가 너 혼자 한국말로 해라고 하고... 서로 답답해서 00 인 말 잘 안하려고 해요... (참여자 2)

실질적으로 밖에 나가면 보호자 없으면 전혀 생활이 안 돼요. 언어도 말도 안 되니 생활을 전혀 못하고, 학교도 전혀 못 다니고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면 좋겠는데... 그게 가장 힘들지요, 언어가 안 되니 00 을 적응시키는데 가장 큰 문제예요. (참여자 3)

나. 문제해결의 열쇠, 한국어

참여자들은 자녀들의 한국 내 정착의 필수요소는 한국어이며 문제해결의 열쇠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참여자 1은 성인이 된 자녀가 한국에 와서 한국어만 잘하면 하고 싶은 것 다하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는데, 언어가 안 돼서 그렇지 못하다며 답답한 자녀의 심정을 대변하였다. 부모로서 참여자들은 한국어만 되면 자녀들이 학교도 가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며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길 기대하지만, 자녀들은 그렇지 못한 것에 불만을 표시하였다. 참여자들은 자녀들이 초기 적응단계에 중요한 한국어 학습보다는 친구들과 어울리며 시간을 허비하고 공부는 뒷전인 탓에 많은 염려와 걱정을 내비추었다.

앞으로 언어 안 통하면 일자리가 막히니깐 언어를 해야 하는데 애들인지라 열심히 안 해서 문제이지요...(중략)... 한국에 와서 도전하고 뜻을 펼쳐야 하는데, 언어를 모르니깐 어려운 점은 애가 한국말 배워서 공부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싶어 하는데, 여기서는 아직은 하고 싶은 것을 못하니깐 답답하지요... 언어는 초등학교 1-2 학년 수준이에요. (참여자 1)

언어공부도 그렇고... 저는 한국어는 정말 열심히 해야 하는데... 아직도 공부하는 건 말을 안 듣지요, 한국어 해야지 학교도 가고 공부도 하고 제가 걱정이 돼서 울면서 애기도 했어요...(중략)... 지금 걱정은 공부 안하는 거예요. 공부는 좀 게을러서 잘 안 해요. 저는 공부하라고 일찍 오라고 해요. (참여자 3)

올해 들어서 공부 때문에... 주로 공부하는 일 때문에 놀아가면서 맘에 공부는 없고 노는데 있고 엄마가 말하면 공부하고 안 해서 많이 혼나요. (참여자 6)

5. 학업과 진로

가. 한국학교 진입과 진로 문제

모든 참여자들은 자녀가 한국 입국 후 학교에 들어가 학업을 계속하고 직업을 갖고 한국사회 내 정착하길 바라는 마음을 강력하게 나타냈다. 하지만, 자녀의 한국학교 진입 과정이 까다롭고 필요한 서류 준비도 많아 학교 편입학에 불편함이 많음을 호소하였다. 참여자 2는 중국에서 따로 살던 자녀가 급히 입국하며 한국학교 편입학에 필요한 서류가 준비되지 못해 학교 입학이 거부되며 겪은 사례를 설명하였다. 참여자 3은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정보가 부족하고 상담도 제대로 받지 못해 안타까워하였다. 학부모들은 자녀가 한국 정착에 이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산업계 고등학교에 진학을 희망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 참여자들은 자녀의 수준에 맞는 학교는 어딘지 진로와 관련하여 무엇을 배울지 등등에 대해 궁금증을 표현하며 자녀를 스스로 도와 줄 수 없음에 미안해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나타냈다.

공부는 할려고 해요, 한국어 열심히 배우고 내년에 ** 이는 고등학교에 가고 싶어 해요. 중학교를 다 공부했는데 졸업장이 없어서... 고등학교로 갈 수도 없고, 검정고시를 봐야 해요. 아이가 학교 다닌 기록을 중국에서 가져와야 했는데, 증명을 못 가져왔어요... 앞으로 군대도 걱정되고 대학은 보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아이가 한국어가 안 돼서 학교 입학할 해야 하는데 몰라서 어려워요... 지금은 학교 가는 것이 제일 걱정이지요. (참여자 2)

어느 학교를 가야하나 정보 없고 친구들 설명 듣고 혼자서 여기저기 알아보는데 정말 어려워요.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엄마들이 어느 학교에 보내야 하는지 몰라요. 지금 제일 큰 걱정이 00이 학교 가는 거예요...(중략)... (기술) 학교 가서 기술 한 가지 배우고 공부하고 졸업해서 여기서 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가 어려우면 기술 배워서 졸업하고 직장 잡고 나중에 대학가도 되고... (참여자 3)

대부분 중도입국 자녀를 둔 부모들은 이주민으로 자녀의 학교 진학에 필요한 정보를 잘 알지 못한 채, 막연히 자녀가 학교에 가서 졸업하면 직업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자녀가 한국어만 잘하면 학업과 직장 잡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감을 표시하였다. 참여자 1의 사례처럼, 참여자들은 자녀들의 이중언어 사용 능력을 개발하면 자신들보다는 더 나은 영역에서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잘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자녀의 학업과 장래 진로를 어떻게 안내해야 하는지 많은 걱정을 나타냈다.

아이를 위해서 지금은 언어하고, (학교)공부해서 직장 잡아서 취직하면 좋겠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앞으로 두 나라 연결하는 일 하면 좋지요...(중략)... 자신이 꾸준히 해야 하는데... 직업은 한국말이 되면 무엇이든 다 하지요. 컴퓨터도 잘하고 언어만 되면 한층 더 올라가야지요. 중국말은 여러 발음과 의미가 있으니깐 잘하는 우리 애들이 한국어만 되면 정말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지요. (참여자 1)

저희 애는 공부 잘해서 의사가 됐으면 좋겠어요...(중략)... 한국에서는 게으르지 않으면 얼마든지 먹고 살아요... 여기에서는 부지런하면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참여자 6)

나. 교육정책과 서비스 요구

참여자들은 이주민으로 한국에서 일만 하는 부모가 시간을 내서 학교를 찾아가 자녀 학교 편입학이나 학습 관련 상담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말하였다. 이에 자신같은 이주민 학부모들이 자녀의 진학과 교육을 위해 상담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학부모 지원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정착되길 바라고 있다. 또한, 참여자 2의 사례처럼 참여자들은 대학생 멘토링 제도가 중도입국 자녀들의 초기 문화적응과 한국어 교육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말하며 방학 중에도 멘토링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길 희망하였다. 참여자들은 방학 중엔 (다문화)센터도 쉬고 갈 곳 없는 자녀들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에 지역의 청소년 기관을 통해 대학생 멘토링 활동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도입국 자녀들이 언어학습에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하였다.

한국문화를 빨리 배울 수 있는 청소년센터 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네요. 전문적으로 학교관련 상담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학교를 가고 싶는데 아직 너무 몰라서 궁금합니다. 부모가 집에 없으니깐 알아볼 시간도 없고 잘 몰라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모르는 것 같아요.... (중략)... 대학생 멘토링이 좋은데 센터가 방학이라서 갈 데도 없고 집에 혼자 있어야 해서 또 걱정이예요. 멘토 대학생 시간도 너무 짧아서 공부를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센터에 다니는 것만도 다행이에요. 어디 갈 때가 없어요. (참여자 2)

저는 아이가 자리를 잘 잡고 학교 다니는 것을 어떻게 연계해서 공부를 하는지 그런 정보 정말 필요해요. 그런 정보 정말 우리 몰라요. (참여자 3)

애가 크는데 외국인이라고 해서 따돌림 받을가 봐... 학교폭력 문제 생기면 어디서 도움을 받아서 어디서 좀 알아 볼 수 있는데 없어서 좀 불안해요. 한국말 잘 모르니깐... (참여자 6)

특히, 참여자들은 중도입국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중국과 한국의 학교교육 방식이 달라 자녀들이 따라가기도 어렵고 중도입국 학생들에게는 현 교육방식이 불충분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참여자 6은 한국학교에서 중도입국 청소년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대충(빠르게) 수업을 진행함으로 자녀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공부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참여자 4는 한국의 학교교육은 사교육 없이는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따라가기 어렵고 학원을 가지 않는 중도입국 자녀들은 친구관계 형성도 할 수 없다는 한국학교의 문제를 소리 높여 비판하였다. 참여자들은 학부모로서 이러한 한국학교의 교육환경을 지적하며 중도입국 학생을 위해 학교가 교육적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지원 서비스도 보강해 주길 기대하였다.

사교육, 한국의 사교육 너무 맘에 안 들어요. 지금 보면 학교는 약간 그냥 학교, 이름만 학교... 속이 없어요. 겉모습만 있는 학교, 교육을 시키는 게 이게 실제적으로 그런 교육인가 그냥 보여주는 교육인가 그런 거잖아요. 교육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는데, 근데 이 학교 원래 공부만 배우는 게 아니라 지식을 배워야 하는 게 아닌가요. 근데 그 지식을 왜 학원에서 배워야 하는 건지? 사교육 좀 아쉽죠. 학교에서 좀 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EBS 듣고 인강 듣고 좋은데 애들은 하교하고 다 학원가잖아요. 끝나면 다 학원하고 그래서 친구가 없어요. 그런 게 참 아쉬워요. (참여자 4)

교육이 애들한테 교육방식이 차이가 나요. 애들은 중국에서는 학교에서 교과에 따라 주입식 교육이 심하고 한국에서는 아주 자유스러워 보여요. 한국에서는 의무 교육이라고 하는지 학교에서 대충대충 넘어가는 것 같아요. 슬슬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중략)...중국하고 공부하는 방식이 달라요. (참여자 6)

이와 함께, 참여자들은 외국인 귀화 정책 완화, 대학 입학금 지원, 학교 환경변화 등을 요구하였다. 예를 들면, 현재 중국국적을 갖고 있는 한민족 동포는 외국인으로 자녀들의 한국 내 적응과 정착을 지원하기에 제약과 한계가 있으므로 다각적인 측면에서 제도적 변화를 요청하였다.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대학도 갈 수 있지만 지금은 돈 때문에 조금은 망설여져요. 돈 때문에도 걱정이예요. 학비가 비싸잖아요. (참여자 1)

사람은 다 똑같은데, 우리 영주권도 있는데, 왜 한국 사람만 (무료 교육지원 서비스) 해 주고 중국 사람은 안 해 줘요? (참여자 5)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조선족 부모의 관점에서 최근 증가하는 중국계 중도입국청소년들의 한국 사회와 가정 내 초기 문화적응은 어떠한지 탐색하고 그 경험 속에 존재하는 의미와 본질을 밝히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에 중도입국청소년을 자녀로 둔 6명의 조선족 부모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고 분석한 결과, 정체성, 사회적 차별과 편견, 문화 차이, 언어와 소통, 학업과 진로의 5개 범주에서 9개의 대주제와 22개의 소주제들이 도출되어 정리하였다.

정체성 범주에서 참여자들은 중국과 한국의 경계 속에 어느 한 국가에도 온전히 소속되지 못한 한민족 정체성을 지닌 조선족으로 한국사회 내 하위집단으로 취급됨으로써 종종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형성에 어려움이 있음을 밝혔다. 이로 인해, 참여자들은 아직은 중국인으로 인식하는 자녀들의 한국사회 정착과 적응에 대해 많은 염려와 걱정을 하였다. 자녀들이 중국에서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한국 역사를 인식하고 있으며 한민족 정체성도 부족한 점을 염려하였다. 이에, 자녀들이 한국사회에 빠르게 정착하여 군대도 가고 대학도 가서 전형적인 한국인의 정체성을 형성하여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이 사회에 소속되길 염원하는 부모의 간절한 마음을 표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중도입국청소년들이 본국에서 형성한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과 가치관과는 다른 사회에서 재사회화 과정을 거치며 정체성 갈등과 혼란을 경험하는 모습들의 재발견인 것이다(남부현, 김지나, 2017; 박봉수, 2013; 양계민, 조혜영, 2012; 이수진, 김현주, 2016; 이병철, 송다영, 2011; 한은진, 2013).

사회적 차별과 편견의 범주에서, 참여자들은 일반 한국인의 우월적 태도와 인식, 그리고 차별과 편견 등(이수진, 김현주, 2016; 주영아 외, 2015; 한은진, 2013)으로 자신들의 국가 정체성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설명하며 이는 자녀들의 한국인으로의 정체성 형성에도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들은 같은 한민족이지만 국가적 경계를 두고 자신들을 가난한 중국인으로 무시하고 몰아붙이는 한국인의 태도는 자신과 자녀들의 한국사회 정착과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이에 대한 빠른 시정을 요청하였다.

문화차이와 언어와 소통 범주에서 참여자들은 중도입국 자녀들이 가정 내 한국인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형성에 필요한 언어 그리고 생활예절과 문화를 새롭게 학습하

고 표현하는데 있어 가족 간 갈등과 스트레스가 나타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은 자신에게 익숙한 문화를 버리고 일방적으로 한국문화를 따르고 한국어 사용을 강요당하므로 문화충돌과 함께 정서·심리적인 불안과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주한 중도입국청소년들에게는 의도적인 노력이며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경험인 것이다(남부현, 김지나, 2017; 배상률, 2016; 류방란, 오성배, 2012; Oberg, 1960; Ward & Kennedy, 1994). 이러한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며 중간자 역할을 하는 이주민 부모의 입장에서도 도와줄 수 없어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하였다. 하지만, 참여자들은 부모로서 자녀들이 한국어 학습을 소홀히 하며 종종 같은 처지의 청소년들과 어울리고 컴퓨터 게임에 몰입하는 것에는 불만을 표현하였다(남부현, 김지나, 2017; 박봉수, 2013; 양계민, 조혜영, 2012). 이는 조선족 이주민인 참여자들이 노력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인식 하에 자녀들을 탓하고 자녀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학업과 진로의 범주에서 참여자들은 중도입국 자녀의 한국 학교 편입학 과정에서 복잡한 절차와 서류준비로 인한 어려움에 불만을 나타냈다(남부현 외, 2016; 선은정, 2014). 또한, 남부현과 김지나(2017)의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두 국가 간 교육과정 차이로 인해 중도입국 학생들은 한국 학교교육을 따라가기 어렵고 학습내용 이해도 힘든 상황임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은 자녀들이 노력을 통해 빠른 시간 내 한국어를 습득하고 학교에 진입하여 학업을 마치면 이중언어 구사능력을 기반으로 전문적인 직업을 갖고 한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였다(남부현, 김지나, 2017). 이러한 참여자들의 기대는 중도입국 자녀들을 위해 학교와 관련 기관에서의 적극적인 학습 지원, 대학생 멘토링, 학부모 상담, 진학·진로 정보 제공 등의 요청으로 이어졌다.

본 연구는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 내 초기 적응과정은 사회와 가정생활에서 정체성 갈등, 사회적 차별과 편견, 문화적 차이와 한국어 소통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이 청소년들은 많은 심리·정서적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방향의 시기임을 재발견하였음에 의미가 있다. 또한, 이주 초기 중도입국청소년의 학업과 진로 문제가 매우 중요한 이슈임을 재확인하였다. 언어적 소통의 문제가 없는 이주민 조선족 부모와는 달리 중국계 중도입국청소년들은 생활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학습하고 재사회화해야 한다. 가정생활에서부터 중도입국청소년들은 언어뿐만 아니라 생활문화

차이로 인한 가족 간 갈등과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동시에 한국인으로서의 국가적·민족적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해야 하는 과제에 봉착한 것이다. 이에 중도입국청소년의 초기 문화적응은 가정에서부터 가족구성원의 배려와 지지가 필수적이며(배상률, 2016; 송민정, 2014; 이지은, 2016; 정희정, 김소연, 2014), 학교와 사회가 함께 이들이 긍정적인 이중문화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당위성도 내포한다. 이를 토대로 중도입국청소년의 안정적인 정착과 긍정적인 문화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언하였다.

첫째, 중도입국 청소년의 안정적 적응과 정착을 지원할 가정에서부터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과 상담을 강화해야 한다. 장기간 별거상태에 있던 부모와 자녀가 만남으로 상호간 감정교류와 적응을 위한 대인관계나 의사소통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부모-자녀 간에 상호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자녀 교육지원을 위한 지식과 정보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교육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지역 행정체계 내 국가별 이주민 대표를 선정하여 입국초기 중도입국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과 상담 그리고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지역 사회교육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법무부 출입국과 교육청, 그리고 학교와의 실제적인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여 입국과 동시에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체계적인 교육, 상담, 정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교육부, 2017; 남부현, 김지나, 2017; 배상률, 2016; 선은정, 2014). 현재 다수를 차지하는 중국출신의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해 한국과 중국 간에 학생 편입학에 관한 제도적 협약을 맺고 수준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해야 한다. 보다 혁신적인 교육과정 개선으로 모국어(중국어)를 활용하여 필수 교과목을 교육하고 한국어는 제 2 언어교육으로 제공하며 동시에 차별화된 진로교육도 제공함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십대 후반의 중도입국청소년들이 모국에서의 교육과정과 연장선상에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고등학교 교육까지는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중도입국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은 단순히 학교에 편입학하거나 학업을 마치는 것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한국사회 내 고용과 연계하여 이중언어 사용이 가능한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셋째,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교육기관의 확대와 자원봉사자 및 대학생 멘토링 활용은 연중 지속되어야 한다. 방학 중에는 서비스가 중단되므로 갈 곳이 없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방황하며 한국어 교육도 멈추게 됨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받

도록 지역 기관과 협력하여 멘토링 제도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원은 중도입국청소년들이 언어적 능력 함양과 재사회화를 지원하며 문화적응 스트레스도 줄이는 기대효과가 있다.

넷째, 한국사회 내 증가하는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의 문제는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다문화교육을 학교와 직장을 통해 체계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이주민의 긍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며 정의적 차원에서 이주민의 인권보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는 언어소통이 가능한 조선족 부모를 대상으로 중국계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 내 초기 문화적응 과정과 그 과정에 발생하는 이슈와 문제들을 파악하였으나 실제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경험하는 것과는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또한 일부지역의 참여자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기에 본 연구결과를 모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중도입국청소년들과 관련 대상을 통해 가정, 학교, 사회를 중심으로 이들의 초기 문화적응과 정착과정 주요 문제와 이슈를 다각적인 연구를 통해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중도입국청소년의 긍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중장기적인 교육정책과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김민정 (2015).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청소년시설환경**, 13(2), 121-134.
- 김명정 (2011). 동반·중도입국 자녀들을 위한 다문화교육. **교육문화연구**, 17(2), 55-76.
- 김아름, 김여주, 이선영 (2013). 중국배경 중도입국 청소년의 국어 습득과 학습자 변인 연구. **새국어교육**, 49, 469-498.
- 김정민, 한상길 (2015). 중도입국 청년의 다문화 대안학교 학습경험 의미탐색. **Andragogy Today: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18(1), 157~184.
- 남부현 (2015). 한국어교원의 외국인 유학생 지도경험에 관한 연구. **교육문화연구**, 21(4), 179-210.
- 남부현, 김지나 (2017). 고려인 중도입국 청소년의 문화적응 과정 경험연구. **지역과 문화**, 4(1), 63-90.
- 남부현, 오영훈, 한용택, 전영숙 (2016). **다문화사회교육론**. 서울: 양서원.
- 남부현, 장숙경 (2016). 초등학교 다문화 특별학급 담임교사의 경험에 관한 연구. **교육문화연구**, 22(1), 145-172.
- 남수현 (2015). **한국의 중도입국청소년 현황과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다문화교육 용어사전 (2014). 한국다문화교육연구학회. **교육과학사**, 177-178.
- 류방란, 오성배 (2012). 중도입국 청소년의 교육 기회와 적응 실태. **다문화교육연구**, 5(1), 29-50.
- 박봉수 (2013). **중도입국청소년의 초기 한국사회 적응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배상률 (2016). **중도입국 청소년 실태 및 자립지원 방안 연구**(연구보고 16-R 04).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선은정 (2014). **중도입국자녀의 공교육 진입관련 다문화코디네이터의 현장 경험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송지영 (2016). **중도입국자녀 교육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송민경 (2014). **유자녀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한국남성의 가족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양계민, 조혜영 (2012). 중도입국청소년의 심리, 사회적응에 관한 탐색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19(11), 195-224.
- 양미진, 고홍월, 김영화, 이동훈 (2012). 중도입국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주 후 적응에
관한 질적 연구. **청소년 상담연구**, 20(2), 87-114.
- 엄명용 (2013). 다문화가정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 사회 적응 영향 요인. **한국가족복지학**, 42, 39-81.
- 오경석 (2010). 입국초기 이주청소년의 경험과 다문화 사회 복지의 과제. **임상사회사업연구**, 7(3), 33-54.
- 오성배, 서덕희 (2012).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의식, 진로준비행동과 사회적 지원 실태
탐색. **중등교육연구**, 60(2), 517-552.
- 이수진, 김현주 (2016). 중도입국청소년의 가족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23(5), 205-235.
- 이병철, 송다영 (2011). 다문화가족 중도입국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3(4), 131-154.
- 이지은 (2016).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장벽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다문화
교육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희정, 김소연 (2014). 다문화가족 중도입국자녀의 사회연결망에 관한 사례연구: 청
소년 상담지원체계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9(4), 831-853.
- 조혜영, 양계민 (2012). 중도입국청소년 학업실태 및 진로포부에 대한 탐색적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4(3), 141-168.
- 주영아, 김현주, 윤경주 (2014). 중도입국 청소년의 또래관계 경험에 대한 탐색적 연구.
재외한인연구, 32, 259-298.
- 좌동훈 (2014). 중도입국청소년의 출신 국적과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21(10), 97-126.
- 천정웅, 남부현, 김태현, 한승희, 박주현 (2015). **현대사회와 문화다양성**. 서울: 양서원.
- 한국다문화교육연구학회 (2014). **다문화교육 용어사전**. 서울: 교육과학사.
- 한은진 (2013). 중도입국청소년의 문화적응과정과 유형 분석.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 17(2), 195-218.
- 교육부 (2017. 01. 13). 2017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발표. <http://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0224&lev=0&searchType=S&statusYN=C&page=1&s=moe&m=0503&opType=N>에서 2017년 10월 22일 인출.
- 법무부 (2016. 10). 출입국 · 외국인정책 통계월보. <http://www.immigration.go.kr>에서 2017년 10월 22일 인출.
- 시사인 (2014. 4. 23일자). 이주자 증가 1위 한국을 돌아본다. <http://v.media.daum.net/v/20140423101913594?f=o>에서 2017년 10월 22일 인출.
-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1), 5-68.
- Benet-Martinez, V., & Haritatos, J. (2005). Bicultural identity integration (BII): Components and psychosocial antecedents. *Journal of Personality*, 73(4), 1015-1050.
- Creswell, John W. (2013). **질적 연구방법론-다섯 가지 접근**(*Quantitative inquiry & research design: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조홍식, 정선옥, 김진숙 공역). 서울: 학지사.
- Colaizzi, F. E.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 it. In Valle, R. S., & King, M. (Eds.), *Existential 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Oxford University Press.
- Giorgi, A. (1997). The theory, practice, and evaluation of phenomenological method as a qualitative research procedure. *Journal of Phenomenological Psychology*, 28.
- Giorgi, A., & Giorgi, B. (2003). Phenomenology. In J. Smith (Ed.), *Qualitative psychology: A practical guide to research methods*. London: Sage.
- Oberg, K. (1960). Cultural shock: Adjustment to new cultural environment. *Practical Anthropology*, 7, 177-182.
- Ward, C., & Kennedy, A. (1994). Acculturation strategies, psychological adjustment, and sociocultural competence during cross-cultural transi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18, 329-343.

ABSTRACT

A study on the experiences and perceptions of Korean-Chinese parents regarding the early culture adaptation of their immigrant children

Nam, Buhyun* · Kim, Kyungjun**

The aim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how and what midway youth immigrants have experienced in Korean society and their families, and what issues and problems occurred during their early cultural adaptation process. Six Korean-Chinese par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sharing their stories about their children's early cultural adaptation stage. The results demonstrate that the participants and their children, despite being of Korean ethnicity find themselves living in the border line between two countries, Korean and China, experiencing cultural identity conflict, social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The midway youth immigrants showed evidence of even lacking a sense of Korean ethnic identity. They have experienced much stress and conflict because of the one way adaptation nature of Korean culture and language in their family and society. Performing a mediating role, the parents expressed concerns and complained about their children's behaviors such as not being focused on learning Korean, just hanging out with their friends or playing computer games. As a result, this study suggests that family members, teachers, and everyday Koreans need to be educated to change their attitudes and behaviors. School curricula must be reformed and school course work between Korea and China can be exchanged in order to help such young immigrants.

Key Words: midway youth immigrant, cultural adaptation, Korean-Chinese parent, Korean language, education

투고일: 2017. 11. 30, 심사일: 2018. 2. 20, 심사완료일: 2018. 3. 1

* Sunmon University

**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